

“신 균형성장전략’ 수립, 지역 낙후도 반영돼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속 대책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특례 확대·예비타당성 면제 등 필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례 확대와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후속 입법 및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감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만 마련됐을 뿐 이를 추진해갈 동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7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갈수록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

화되는 가운데,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사·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해 제안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가 특별법 후속 입법 조치의 촉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 인구감소 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명시해 상향식 인구감소 대응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특례 지원,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른 지원시책 마련,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권 설정 등이 가

능해졌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특례 지원 관련 주체 간 협의를 통한 운영안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에 기초한 명확한 목표집단 설계에 따른 지역의 인구 확대 전략이 요구되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 꾸준히 제안했던 지역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후속입

법 과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협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된 요구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대응을 지역 주도로 재편하는 실질적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타 면제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응 수요를 반영한 후속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금연휴 마지막 날 ‘금빛 나들이’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장성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황룡강변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물보호소 반려동물 입양하면 25만원

광주시, 성숙한 문화 조성 위해 지원비 지급

광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5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입양두수는 945두로 2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 32.2%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광주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지원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 관련 포스터 제작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또 ▲동물보호법 ▲입양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홍보 캠페인을 관내 공원 및 공공시설에서 연 18회 가량 운영하고 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

양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광주시는 올 들어 8월말 현재 유기동물 입양비 173건을 지원했다. 시는 이밖에도 반려동물 등록 향상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1121건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또 지난달 반려견 출입이 잦은 관내 10개 공원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하기도 했다. 남택순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첫 도서관정책 평가 ‘광주시 우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유서가, 우리동네 책 읽는 가게’ 호평

광주시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수립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시·도에서 추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점검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가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2021년 추진실적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408개 추진과제(중앙 73, 시·도 335)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부문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유서가, 우리동네 책 읽는 가게’를 운영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

았다. 광주시는 제59회 도서관대회 첫날인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관 표창을 받고 관련 공유회에 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보다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모색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남도 음식, 세계화 가능성 봤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7만명 성황… 국제관·시군 대표음식 인기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7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면서 9일 폐막, 케이(K)푸드의 원류 전남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 확인했다.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장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는 전남의 으뜸가는 음식과 전통문화가 펼쳐졌다. 축제장 곳곳에 외국인 눈에 띄었고, 국제행사 도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남

도 전통주와 지역 특화빵, 세계 주요 국가 대표음식 시식 등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스, 루마니아 등 4개국 주한대사 초청, 180명의 외국인 문화체험단 방문, 남도음식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세계음식 및 수출상품을 선보인 국제관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여기에 요리연구가 이혜정의 힐링 토크 콘서트, 가수 김연자, 노브레인 등 유명가수 낭만콘서트,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공연, 전남 사투리 경연대

회, 추억의 사진전, 해상 불꽃쇼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았다. 남도음식명인과 시군 대표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전시관, 명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바비큐 체험, 새끼꼬기 등 전통문화체험, 증강현실 사진관, 관람객 현장 퀴즈쇼 ‘황금순가락을 잡아라’ 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했다. 김병성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관람객에게 남도의 맛과 멋, 힐링을 선물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축제 성과를 토대로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